

기아차(000270)

매수

목표주가 87,000원

주가(9/26) 66,400원

3분기에도 강한 수출 ASP 상승세 지속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 충분히 상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기아차의 8월 수출 ASP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5월 7.3%에서 6월 6.2%, 7월 2.8%로 둔화했으나 8월에는 상승세가 다시 강화돼 5.1% 오른 13,283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기아의 수출 ASP가 3분기 들어서도 강한 상승세를 지속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수출 ASP 상승세는 미니밴 및 고급 세단의 수출 강세에 따른 것이다. 8월 Carens 수출은 3월 신모델 출시로 전년동월 1,952대에서 5,295대로 크게 증가했다. K7(미국 모델명 Cadenza) 수출 역시 동기간 253대에서 1,662대로 급증했다. 기아 Cadenza 미국판매는 6월, 7월, 8월 각각 1,001대, 1,627대, 1,677대로 동기간 현대의 Azera(국내 모델명 Grandeur) 미국판매 813대, 928대, 898대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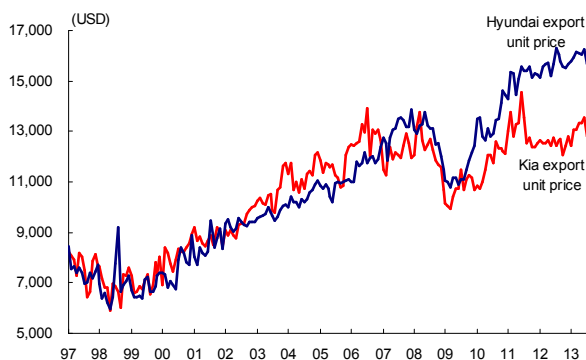
가격 결정력 강화

7~8월 기아의 수출 ASP는 전년동기대비 4% 상승해 당사의 3분기 추정치 3% 상승을 상회했다. 기아의 ASP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유는 1) Sportage와 Soul을 생산하는 광주 2공장에서 7월 22일부터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46에서 58로 올렸고, 2)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돼 가격 결정력이 빠르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는 10월에 신형 Soul 출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판매에 대한 우려는 최근 이틀간의 조정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대의 8월 수출 ASP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16,425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12년 7월 16,284달러를 넘어섰다.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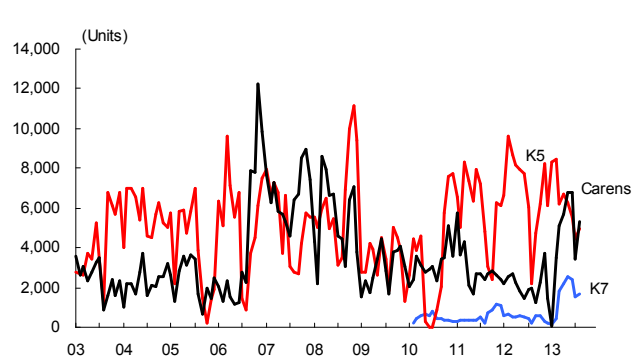
기아차에 대한 '매수'와 목표주가 87,000원(12개월 forward PER 8배, 업종평균 PER)을 유지한다.

[그림 1] 기아차 vs. 현대차 수출 ASP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기아차 Carens, K5, K7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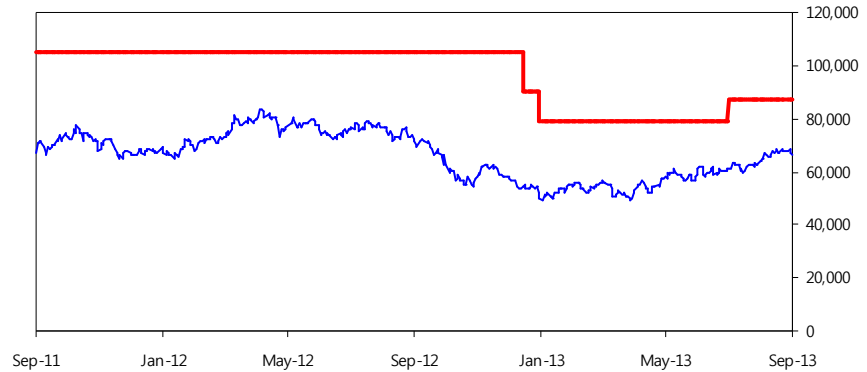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3276-6152
sungmoon.suh@truefriend.com

진만 3276-6279
jinman05@truefriend.com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

종목(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기아차(000270)	2011.04.29	매수	105,000 원
	2013.01.09	매수	90,000 원
	2013.01.25	매수	79,000 원
	2013.07.26	매수	87,000 원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3년 9월 26일 현재 기아차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기아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현 주가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현 주가 대비 -15~15%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